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아보기

##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시편 24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광대한 우주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좁혀가며, 예루살렘(일상의 삶), 성전(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차례대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두 번 동일한 표현으로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영원한 문'은 '오래된 문'입니다. 이는 굳게 닫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문을 의미하며,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의 실제 문(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상징합니다. 고대에는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고,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고개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머리를 들어 왕을 영접하라는 표현입니다. 즉,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두 번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리고 세 번의 대답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호와 썸바오트)'-이 이어집니다. '여호와 썸바오트'는 전쟁의 하나님, 군대의 주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의지할 때 실제로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영접은 영광의 왕에 대한 환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 역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예루살렘 성과 같아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왕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의심, 핍박과 회피로 굳게 닫혀 있는 마음의 오래된 문들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자는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썸바오트의 이름으로 담대히 싸울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를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



## 텍스트와 콘텍스트

# 멸망의 홍수, 희망의 무지개



김성진 담임목사

### 들어가는 말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고, 노아의 직계 조상은 '셋'입니다. 셋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신 것이 아담의 자손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해진 아들이 셋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사명이 셋과 그 자손들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역사로 전개됩니다. 가인의 후손은 도시와 문화를 세우며 세속적 문명을 발전시키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갈등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회복하고 이끌 사람들을 셋의 자손 가운데서 계속 찾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는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자손으로 10대 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땅'을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도록 이 세상을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 위로의 아들, 노아

이러한 타락과 무너짐의 시대, 어쩌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셋의 자손 가운데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위로', '안식',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창 5:28-29).

라멕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와가 받았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꺾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끝낼 수 있는 평화의 아들, 회복의 아들, 위로의 아들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은 저주받고, 저주받은 땅은 다시 인간을 저주합니다(창4:12). 이때부터 지진, 기근, 해일, 가뭄, 홍수 등으로 끊임없이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저주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창 9:8-17)

고,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역과 갈등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위로의 아들을 찾으셔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 죄악된 세상을 정결케 하는 홍수

창세기 6장 6절과 7절은 악이 가득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사..."라고 표현합니다. '한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어떤 대상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품고 있다가 그 기대가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보며 느끼는 깊은 슬픔과 아픔입니다. 이 한탄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행동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셋의 자손  
위로·회복·안식 의미하는 노아,  
하나님 경외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 만들어

홍수는 심판이자  
죄악 세상을 정결케 하는 제사  
심판 후 주어진 은혜의 언약, 무지개

홍수 후 무지개처럼  
고난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이 시대를 위로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창6:7). 여기서 '쓸어버리다'라는 표현은 마치 빗자루로 땅 위의 먼지를 싹 쓸어내듯이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전면적인 심판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심판의 수단이 바로 홍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홍수, 곧 물을 사용하셨을까요? 죄로 인해 세상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 세상을 물로 덮어 창조 이전의 상태, 곧 물 한 덩어리의 모습으로 되돌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만이 아니라, 정결함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 리셋(reset)이었습니다. 홍수는 죄로 오염된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하나님의 정결의 과정이었습니다. 인류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결하게 하시는 제사, 곧 회복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의 제사를 수행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 노아의 믿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방식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설계도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이후의 성전을 만드는 것의 기원도 노아의 이 사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홍수 이후 인간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되었다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전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노아가 방주를 지은 시간은 120년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을 바탕으로 하면 노아는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히 11:7).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시대와 상식을 거슬러 산에 배를 짓는 순종을 120년 동안 이어갔으며,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바로 이런 노아의 믿음과 마음이었습니다.

### 멸망의 홍수가 비추는 소망의 무지개

그러면 어떻게 이 홍수가 인류에게 노아의 이름과 같은, 위로와 안식과 회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노아 시대 홍수의 결론은 멸망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였던 것은 회복이었고, 이 회복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2-13절을 보면, 하나님은 홍수 이후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며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학자들은 이를 '보존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생존과 세상의 지속을 약속하시며,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꼭 찾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홍수 뒤에 무지개를 띄우시고, 그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른하늘에는 아무리 햇빛이 비쳐도 무지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야만 비를 통과한 빛이 굴절되어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고난과 눈물, 시련의 비가 내릴 때가 있지만,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며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 맺음말

이렇게 고난과 시련의 비를 지나야 비로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무지개를 붙들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굳건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노아처럼 이 시대의 '위로의 아들', '회복의 딸'이 될 수 있습니다. ☆

선교대회

# 사역지 현장과 교회의 비전을 잇다



열린교회는 지난 4월 27일부터 일주일간, 파송 선교사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기도 후원을 독려하기 위한 선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날에는 교회 마당에 나라별 부스를 설치해 선교지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해 보았으며, 한국선교훈련원 남경원 선교사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매일 파송 선교사님들의 강의와 설교를 통해 사역 현장과 비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금요기도회 시간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고 중보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큰 은혜와 감동을 더했습니다. 한편, 첫날에는 담임목사님께서 열린교회의 선교 비전을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여 함께 전달드립니다. -편집부

## 시작하며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가장 깊이 고민하고 준비한 주제가 '선교'였습니다. 제가 재직하던 학교는 선교사를 양육하고 선교 전략을 연구하는 기관이었기에, 11년간 섬기며 다양한 선교지를 경험했고, 이로 인해 '선교적 교회'를 세우겠다는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열린교회에 와서는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열 가지 선교 계획 중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실행했으며, 교회의 준비가 더 필요함을 느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선교 비전의 절반밖에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함께 그 그림을 완성해가길 소망합니다.

### 1. 선교 핵심 가치: 네트워킹

열린교회 선교의 핵심 가치는 "네트워킹"입니다. 그동안 여러 선교 사역을 해왔지만, 각 사역이 하나의 큰 구조 안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선교적 방향성을 갖도록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네트워킹은 단순히 구조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열린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선교 자산—재정, 인력, 노하우, 30년의 목양 경험, 교회학교 커리큘럼 등—을 선교지와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선교 협력체를 구성하여, 단순한 파송이나 재정 후원을 넘어서 지역 맞춤형 선교 전략을 세우고, 선교사 간 협력과 공유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교회(Missional Church)'로서의 역할을 정확히 정립하는 것이 이 네트워킹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 2. 선교 목적: "가서 제자 삼으라"

열린교회 선교의 목적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서 제

자 삼으라"(마태복음 28:19)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선교 현장에서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교회 건물 건축에 집중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학 선교' 즉, 지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와 지도자를 양육하는 선교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선교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는 더 이상 신학 선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겐 신학은 있지만, 신앙과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 교회는 아직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살아 있고, 잘 정리된 신학과 그것을 실제 목회에 적용하는 살아 있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신학 선교를 위한 사명을 맡기신 유일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선교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열매 맺는 선교입니다.

이제 열린교회의 선교 방향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살펴볼려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역도 있고, 앞으로 펼쳐갈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국내 선교

#### A. 지역전도

- ① 지역 교회로서 역할 강화
  - 직장인 예배: 매주 목요일 직장인 예배를 통해 지역사회에 열린 예배 공간 제공
  - 청소년 교육 및 공간 개방: 주중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돌봄
  - 지역 소외계층 돌봄 사역: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지역 섬김 실천
- ② 지역 전도 체계화: 지역 인구 유입과 특성 분석을

통해 보다 전략적인 지역 전도 실행

#### B. 아웃리치

아웃리치 네트워크 구성: 한 번 방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 맺기

- ① 국내 전도 거점 교회 발굴: 도시 및 농촌, 특히 도시 상가교회를 지원하고 세우는 사역
- ② 도시와 농촌 지역에 맞는 아웃리치 전략 수립
- ③ 열린교회의 목양 및 교회학교 커리큘럼 소개: 열린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양, 교회학교, 선교·전도 자료를 패키지화해 지역교회에 제공
- ④ 부교역자들을 지역 교회 담임목사로 파송 및 후원
- ⑤ 거점 교회들 간의 협력 사역 강화

#### 4. 해외 선교

선교 전략: 선교지 중심 (선교지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에 맞는 전략 수립 필요함)

- ① 관계 중심에서 사역 중심으로
- ② 열린교회의 선교 비전과 적합성 평가
- ③ 현지인 교회 및 협력 선교사 발굴
- ④ 선교사 재정 지원 체계 수립: 생활비와 사역비 구분/선교 시행 세칙에 따른 지원/선교 보고 정례화

#### 맺으며

우리는 지금 공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선교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대적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 신학과 목양의 자산을 선교지와 국내 교회들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선교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열린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비전을 구체화하며 동역해 가길 소망합니다. ☆

## 2025 국내아웃리치

**일정**

6월 6일(금) ~ 8일(주일)

\* 6월 8일(주일)은 아웃리치로 인해 새신자공부, 새가족부, 성장반교육, 구역 및 순모임, 벤처다임 구내식당 점심식사 등의 모임이 없습니다.  
\* 6월 10일(화) 화요전도기도회는 쉽니다.

**장소**

장년1교구, 청년부(3국) - 매향교회(경기 화성)  
 장년2교구, 청년부(1국) - 반천교회(강원 정선)  
 장년3교구, 청년부(1국) - 덕천교회(강원 정선)  
 장년4교구, 청년부(1국) - 상동교회(경북 예천)  
 장년5교구, 청년부(2국) - 여량교회(강원 정선)  
 장년6교구, 청년부(2국) - 영광교회(충남 금산)  
 장년7교구, 청년부(2국) - 길곡교회(충남 금산)  
 청년부(4국) - 구상교회(충남 금산)

### 주요사역


- 6일(금)~8일(주일) 국내아웃리치
- 7일(토) 온세대아침예배
- 17일(화)~23일(월) 릴레이기도 헌신자모임
- 20일(금)~21일(토) 당회수련회
- 21일(토) 부모기도회
- 24일(화)~25일(수) 교역자 보고회
- 28일(토) 강단기도 헌신자모임
- 29일(주일) 정기제직회

회심집회 후기

# 어둠에서 빛으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안예지 청년부  
ayg030418@naver.com

 청년부 회심집회를 생각하면 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제 마음에 반복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하실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어지고 다시 살아날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현실의 여러 상황과 제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아, 예년처럼 많은 기도로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주바라봄기도회를 통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이 주어졌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기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 자신뿐만 아니라 순원들, 주변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회심집회를 향한 기대와 만나며, 일주일 전부터는 순원들과 하루씩 작정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안의 어둠이 부서지는 날'이라는 주제로 회심집회가 시작되었고, 처음엔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어둠을 깨뜨리실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회를 통해 어둠은 그저 '빛의 부재'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저의 모든 장점조차도 결국은 부수어야 할 어둠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심판이 애굽이 강점으로 삼던 힘과 부, 지혜에서 시작되었듯, 저 역시도 스스로 강점이라 여긴 부분들

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죄의 본질이 교만과 자기사랑에 있다는 말씀, 결핍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말씀, 그리고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화하며 삶의 중심이 어지럽혀졌던 제 상태를 직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게 주어진 상황들과 마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진정한 양분인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연약한 저 자신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무너짐 이후에 저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한 줄기의 작은 빛만 임해도 어둠은 자연히 물러간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

을 들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후,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강을 건널 용기를 얻은 것처럼, 저도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미 주셨던 수많은 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이어서 할 하나님을 변수처럼 여기고, 상대적인 것들을 상수처럼 여겼던 제 시선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은 남아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야곱뿐 아니라 예서의 마음까지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뿐 아니라 주변의 상황, 사람들도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때로는 제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와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심집회는 어둠을 바라보던 시선이 회복되어 빛을 보게 되고, 변수만 보이던 시선이 회복되어 상수를 바라보게 되었으며, 나 자신만 보던 시선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심집회를 통하여 청년부 공동체가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어린이회심집회(교사) 후기

# 연한 뿌리,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손수동 소년부 교사  
800tauto@naver.com

 2024년도 처음 교사로 헌신하기로 마음먹으면서 들었던 말씀이 기억난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교회의 어떤 형태의 모임, 예배 안에 회심의 역사가 없다면, 그 모임은 잘못된 모임이다."

소년부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러지는데 한 영혼도 회심하는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린교회 홈페이지에 교회학교를 안내하는 글을 보면 유치부부터 소년부에 이르기까지 '회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만큼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우리에게 아이들의 회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사를 하면서 반드시 내가 맡은 아이들은 꼭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 회심집회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을 때, 시간이 흘러 소년부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교육 활동, 행사들을 하면서도 마치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아니 오히려 더 약해진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한없이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아이들은 마치도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성벽을 쌓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만의 성벽에 갇혀, 그 어떤 말씀도 바람처럼 흘러버리는 것 같았다. 무엇이 그들의 굳은 마음을 봄눈처럼 녹일 수 있을까?

그러나 이번 회심집회를 준비하며 강도사님께서 '우리는 아이들의 극적인 회심을 바라기보다는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임하자'는 기도 제목을 주셨다. 어쩌면 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이 바람 같은 불 같은 회심의 역사를 바라고 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렇다면 더없이 좋겠고, 교사로 헌신하는 내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이번 회심집회에 그런 극적인 회심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된다.



내 인생도 돌이켜 보면 그렇게 말씀의 씨앗이 심기고 마른 화분에 물길을 틔우는 시간이 꽤 길지 않았다. 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메마른 땅을 적시며 생명을 품어내는 시간이지 않을까?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니 언젠가는 아이들의 마음 밭에 회심의 꽃이 활짝 피게 되리라 믿는다.

아이들이 회심집회에 참여하면 왠지 오늘은 꼭 회심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나 또한 우리 딸들이 회심집회를 마치고 오면 돌아가는 차 안에서 '회심했어?' '기도할 때 눈물 흘렸어?' 물어보곤 했던 기억이 난다.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는데 말이다. 나의 실망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스스로 말할 때까지 더 기다려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회심집회 기간 동안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었다. 큰 무대를 가득 채운 아이들이 울동을 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마치 열 손가락 가득 보석을 끼운 듯 마음이 풍성하게 차오른다. 그 은혜에 압도되어 그동안 찬양하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나를 쫓아보던 아이가 울동을 따라 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된다.

회심집회를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감을 보게 되며, 연한 뿌리가 말씀을 움켜쥐며 더 단단해졌음을 믿는다. 소년부 아이들이 회심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정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특권을 누리시는 교사가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

기자가 묻다/예배음악부 박정화 권사님

# 예배의 숨결에 음악을 담다



취재: 이숙영 기자 iemmei@naver.com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자 감사이며 기도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예배음악부는 바로 그 고백을 더 깊고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 조직된 예배 사역 부서입니다. 예배음악부의 첫걸음부터 함께해 오신 박정화 권사님을 만나, 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 Q. 예배음악부 사역에 헌신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작년 예배 TF 팀에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길이었어요. 그때 담임목사님께서 예배 안에서 말씀, 기도, 찬양이 균형 있게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예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셨고 이에 TF 팀은 깊이 공감하면서 예배음악 사역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평소에도 예배 안에서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져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 왔기에,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감사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 Q. 예배음악부는 현재 어떤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A. 예배음악부는 담당 교역자인 김다영 전도사님과 부장인 저를 중심으로, 예배반주 팀, 성가대 팀, 금요연합기도 찬양 팀의 세 음악팀과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 모든 부서의 찬양팀이 예배음악부에 속한 팀이랍니다. 음악적인 섬김뿐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지원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현재는 신설된 부서인 만큼 체계를 구축해 나갈 때와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대해 예민하게 살피며 무엇보다 음악으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내·외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Q. 최근에 예배음악부 주관으로 세 차례 세미나가 진행되었죠? 각 세미나의 특징을 소개해 주세요.

A. 네, 감사하게도 세 번의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1차는 성도 전체를 대상으로, 예배 안에서 찬양의 본질과 의미를 신학적 관점으로 깊이 통찰하는 시간이었고요, 2차는 예비음악학교 1st로, 음악으로 예배를 실제로 섬기는 찬양 팀들을 대상으로 팀 내에서의 각자 역할과 팀워크의 중요성과 기능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3차 세미나는 악기별 클래스가 운영된 실전 중심의 심화 실습이었고, 실제 예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단순한 기술 훈련을 넘어서,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까지 함께 다루는 시간이 되도록 고민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반기 예배음악부 사역은 모든 성도를 위한 신학적 이해 중심의 세미나와 섬김자를 위한 실천 중심의 예비음악학교를 통해 예배음악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다루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Q. 예배음악부가 교회에 어떤 유익과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A. 예배가 경직되거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말씀과 기도 위에 잘 세워져 있지만, 찬양을 통해 감정과 고백을 드리는 부분은 다소 움츠러들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음악의 스타일이나 세대 간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장을 만드는 것이 예배음악부의 바람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님들이 찬양의 기쁨을 더 깊이 경험하시길 기대합니다.

## Q. 사역을 이끌며 어려움을 느낀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A.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진 않았어요. 예배음악 사역을 아직도 '보조적인 역할'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남아 있고, 예산이나 훈련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풀어야 할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감사한 건, 점점 인식이 바뀌고 있고, 실제적인 열매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섬기는 분들의 진심 어린 헌신과 그 안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무엇보다도 큰 격려가 됩니다.

## Q. 앞으로 예배음악부는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나요?

A. 예배음악부의 가장 큰 비전은 원리적으로는 공적인 예배 속에서 말씀, 기도, 찬양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드러지는 예배가 되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 안에서 자유롭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주를 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이끄는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세워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파트별 실기 훈련뿐 아니라,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이해, 팀워크, 예배자의 태도까지 함께 다루는 교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예배음악부 전 팀이 함께 모여 비전과 방향을 나누는 통합 워크숍을 준비 중이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분이 음악 사역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도 마련해 가려 합니다.

## Q.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A. 찬양은 세대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익숙한 찬송에 마음을 여는다면, 또 누구는 새로운 곡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인다는 것,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배음악부는 모두가 자유롭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는 팀,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찬양이 더욱 깊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섬김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예배음악부는 이 이야기 안에서 때로는 배경이 되고, 리듬이 되며, 심포가 되어,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도록 조용히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김의 걸음을 통해, 우리 안에 더 깊고 넓은 예배의 울림이 퍼져가길 소망합니다. ☆

## 어린이회심집회(유년부) 후기

# 하나님이 내 곁에 계세요!



손승후  
2학년

저는 이번에 유년부 회심집회에 다녀왔어요. 회심집회는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학년과 학년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더 좋았어요. 점심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저녁 예배 시간에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말씀 시간과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조금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예배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이 내 곁에도 있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뻐요. 찬양 시간에는 신나는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몸도 움직이고 손도 흔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니 기분 정말 좋았어요. 예배가 끝난 뒤에는 교회에서 밥을 먹었고, 친구들이랑 뛰어다니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내 마음을 집으로 만드는 '집 만들기' 활동도 있었는데, 내가 만든 집이 너무 예뻐서 내 방에 놓을 거예요. 간식으로는 동전 초콜릿과 젤리를 먹었고, 집에 갈 때는 주스와 빵도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회심집회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 회심집회에도 꼭 다시 가고 싶어요. ☆

## 어린이회심집회(초등부) 후기

# 호산나, 제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김라온  
3학년

저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 회심집회에 갔어요. 저는 교회에 가는 게 참 좋아요. 좋아하는 선생님과 친구들, 전도사님도 계시고, 예배와 활동들도 모두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회심집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되었어요.

첫 번째 예배 시간에는 욕심과 죄에 대해 배웠어요. 죄를 버리려면 먼저 내 죄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두 가지에 대해 들었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회개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공과 시간에는 복음 팔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색깔로 표현했어요. 회심집회 동안 저는 눈물이 많이 났어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부모님께 "눈물이 났어요, 슬펐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 왜 슬펐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마음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예수님이 저를 위해 돌아가신 걸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찬양 시간에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게 마음속 깊이 느껴졌어요. 기도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생각났고, 제 죄를 알고 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서 또 눈물이 났어요.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번 회심집회에서는 하나님이 제게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

행정사역위원회Q&A/이성도 목사님

# 한 걸음 앞서 고민하고, 한 걸음 늦게 마무리하다



**Q. 행정사역위원회를 섬기게 되신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A. 사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섯 개의 사역위원회 가운데, 목양, 예배, 선교와 복지, 그리고 다음세대 사역위원회는 교회의 핵심 가치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사역위원회의 역할이 이들 다른 위원회에 비해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역의 성격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행정사역위원회는 다른 네 개의 사역위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원활하게 사역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좌하고 뒷받침하는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사역을 이끄는 일보다는, 각 사역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이 사역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역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Q. 행정사역위원회는 어떤 구성으로 섬기고 있나요?**

- A. 위원장: 박기준 장로
- 담당교역자: 이성도 목사
- 안전관리부: 박기준 장로, 이성도 목사
- 재정부: 김용연 장로
- 봉사부: 편재숙 권사, 최선미 전도사
- 인재양성부: 정범용 집사, 김진산 목사
- 주차부: 정원대 집사, 이성도 목사
- 경조부: 안성철 집사, 이성도 목사
- 청결부: 박창일 집사, 이성도 목사
- 전문인성김부: 백인봉 집사, 심재은 목사
- 기타행정·관리: 임성우 국장, 이성도 목사

**Q. 2024년도와 비교해서 교회의 행정사역이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행정사역위원회는 고정된 사역이 많은 위원회이다 보니, 전체적인 사역의 구성이나 내용은 2024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행정업무의 중앙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역자들이 목양 사역과 함께 각자에게 맡겨진 부서나 사역의

행정업무를 병행해왔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감당의 차이는 있었지만, 때로는 행정업무가 과중될 때 목양에 소홀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교역자들이 필요한 사항을 행정사역위원회에 요청하면, 위원회 산하 각 부서에서 그 업무를 최대한 감당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역자들은 목양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행정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문서 양식의 통일입니다. 그동안 교구, 부서, 사역별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각종 예배 진행안, 계획서, 기안서, 심방 기록 등의 양식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서의 전달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양식들의 장점을 검토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식을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식의 통일은 문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역 간 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행정사역위원회 안에 소위원회의 수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 많습니다. 사역의 범위가 확장돼서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올해 신설된 안전관리부, 인재양성부, 전문인성김부가 어떤 섬김을 하는 부서인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안전관리부는 교회의 인적·물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배나 각종 모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입니다. 또한 실제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마련된 지휘체계를 따라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재양성부는 이전에 신학센터에서 감당하던 사역 중 일부를 계승하면서 새롭게 확장된 부서입니다. 단순히 열린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역 목회자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역 방안을 기획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인성김부는 열린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여 유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동역하고, 전문성 있는 각

자의 달란트와 은사로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능동적인 섬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자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장점으로 지체를 섬기고 또 섬김을 받으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Q. 열린신문의 취재 코너에서도 다룬 바 있고(vol.292), 담임목사님께서 교회 섬김 중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던 '주차부' 섬김과 관련해서 교인들이 협조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A. 우선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주차 사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사역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되었고, 그로 인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중직자분들, 특히 권사님들께서 기꺼이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주차부원들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고,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께는 언제든지 소속 교구 목사님을 통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큰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바램이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분야가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여러 장기와 기관들이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듯,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이 제각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정은 이 모든 장기와 기관의 뼈대를 잡고, 혈관처럼 서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교회가 온전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은 어느 부분이 막히면 바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님들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섬기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족함이 있을 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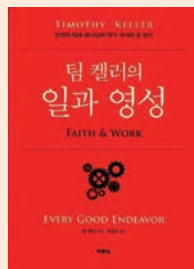
또한 행정사역위원회가 한 걸음 앞서 고민하고, 한 걸음 늦게까지 세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이 사역의 큰 동력이 됩니다. ☆

추천도서

팀 켈러의 일과 영성 팀 켈러 / 최중훈 역 / 두란노서원

(팀 켈러 목사님은) 20년 넘게 학생들과 직장인, 임원급 리더들에게 일과 소명에 관한 문제들을 가르치고 상담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간의 통찰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전 세계 독자들 앞에 내놓는다. 무얼 위해 일하는가, 피 튀기는 경쟁과 실적지상주의가 판치는 일터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고객들을 섬길 것인가, 직업세계에서 저마다 가진 재주를 활용해서 뜻을 지키고 보람을 얻을 방법은 없는가,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더 키워나갈 수는 없을까, 직장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을까 따위의 심각한 주제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일한다”는 크리스천의 노동관은 진취적인 직장생활과 균형 잡힌 개인생활의 토대가 된다. 켈러는 직장에서 드러내는 뛰어난 능력과 성실성, 절제된 태도와 창의성, 그리고 열정이 제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을 넘어 다른 이들을 돕는 길이자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지 소상하게 설명한다.(출판사 서평 중에서)



새가족

▶▶ 장년

- 이동현(63)
- 박은주(67)
- 오민자(71)
- 장박사(45)
- 함연숙(52)
- 김효순(58)
- 신예슬(88)
- 김정해(87)
- 우홍균(38)
- 최재희(86)

▶▶ 청년

- 이예원(89)
- 손한길(89)
- 성익진(89)
- 김주희(00)



장애인지원 후기

# 순수한 기도, 진짜 사랑 - 사랑부에서 배운 것들



진경숙 장년5교구  
jjj5134@naver.com

사랑부 교사로 섬기게 된 것은 저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 사역에 헌신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처음엔 단순히 “수고가 많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저는 처음엔 막연한 두려움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필요한 준비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장애인 선교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 장애 아동의 특성, 예배 방식, 효과적인 소통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실제 사역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알차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3월에는 장애인 교사교육과 교사대학이 4주 동안 진행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부 정호석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장애인 교사교육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주 차 강의에서는 장애인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배우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장애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 차 강의에서는 성경 속에서 나타난 장애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관점을 균형 있게 살펴봄,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되새겼습니다. OX 퀴즈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주 차 강의에서는 집중력과 기억력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 방법들을 배

웠습니다. 4주 차 강의에서는 언어 및 말 장애를 가진 지체들과의 소통 원리를 배우고,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들을 익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사랑과 사랑으로 연결되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4월 장애인 주일에는 사랑부가 대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교사들은 몇 주 전부터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 단체 채팅방에 나누고, 매일 함께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 기도 제목들이 성도들과 함께 공유되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내용이 자신이 아닌 가족, 친구, 타인을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영혼들인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게 올려졌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부 사역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의 연합함을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그분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부 지체들과 그 가정이 겪는 여러 어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된 예배의 발걸음이 언제나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

곰곰이 생각

## 우리는 약속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당신과 제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세금을 내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모두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기대어 안전하기를, 평안하기를, 회복되기를,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깨어질 때마다 당신과 저는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약속’안에 있던 존재였으며, 지금은 그 ‘잃어버린 약속’의 빈자리를 메꿔준다는 약속들에 의지해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약속’, 몰랐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세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 창세기 17장 7절

새공과 소개<전도서>

# 허무의 땅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다



김성진 / 열린교회출판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지는 인생, 우리는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지혜와 부, 쾌락과 명예를 모두 누리려 한 사람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진솔한 고백을 전도자는 남겨줍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수증기처럼, 인생의 모든 수고와 성취는 어느 순간 ‘헛벨’—붙잡을 수 없는 허무함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단순히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모순과 한계를 정직하게 대면한 한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얻은 위안과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전해 줍니다.

우리 인생은 주어진 ‘밀천’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결산하는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끝은 이윤이 남겨진 삶일까요? 아니면 본전마저 잃어버린 삶일까요?

저자는 본문을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풀어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새롭게 일깨우라 말합니다. 지나온 시간의 덧없음을 마주할 용기와, 하나님 주시는 현재의 은혜를 누릴 믿음을 가지라 명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에서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시작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숨결과 그분의 음성이 우리 안에 새롭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와 그분을 기뻐하며 누리는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서>와 함께하는 이 복된 20주간의 여정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

(목양사역위원회)

##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러니

시편 103편 15-17절



# 하나님, 바이... 그 후 다시 만남은혜

이미숙장년3교구  
p.polms@hanmail.net



“쫄! 니 교회라도 가라” - 집순이 중학생인 나에게 불신자 엄마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방학 동안 딸의 집콕에 시달리신 엄마의 하소연 같은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 집으로 전도 온 전도자에게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그다음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불신자와 전도자와 주님의 합작품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주일 낮 예배를 혼자 드린다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가 가라고 했고 나는 약속을 했으니...’ 세 달째 예배가 이어졌습니다만 모르는 어른들 사이에 통성기도가 무서웠던 저는 마침 학교친구의 소개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3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펼떡 펼떡’ - 지난 삶의 궤적에서 저의 모습은 메뚜기 신앙이라 고백합니다. 뛰어올랐다, 콧 꼬꾸라졌다, 은혜로 벅찼다가 상심하고, 말씀을 사모하다가 말씀에 목마르고, 은혜에 울었다가도 세상으로 인해 웃었다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안되겠네요! 신앙생활이 너무 괴로워요. 이제 그만 원래대로 세상에서 편하게 살겠어요. 이제 저 하나님과 작별하겠어요. 하나님 뻘이.” 고2 때 갑자기 아버지 제사를 작은집에서 가지고 온 엄마에게 제사에 참여 못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대신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 년이 지난 어느 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다.’ 밀도 끝도 없이 이 찬양이 갑자기 내 속에서 울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아... 내가 갈급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내가 괴로웠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하나님은 봄날의 꽃내음처럼, 솜사탕 향기처럼 설레고 두근거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걸어가며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별다른 경건 생활도 없었던 나에게 주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떠올리게 하셨으나 이미 통각지가 썩인 나에게는 하나님의 잔소리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쫄! 나도 연애 좀 할게요.” 하고 시작된 연애와 결혼....

‘응애 응애’ - 남편은 결혼 전까지는 같이 교회에 출석하였으나 첫애가 태어나고 몸조리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부터 교회에 못 가게 이모저모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리다가는 죽을 것 같아 아이가 두 돌쯤에 교회에 나가야겠다며 성탄절 날 아이를 업고 집 앞 상가 교회에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은 중국 텐진 주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외로운 환경에서 남편은 아이와 함께 한인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고, 본인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아들과 나를 항상 데려다주고 데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거기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로 오라고, 여기가 좋다고’ - 한국으로 귀국 후 안양에 자리를 잡으며 마침 절친이 여기에 미리 자리를 잡고 열린 교회를 추천해 주었으나 난 ‘집 가까운 곳이 최고다. 하나님 부르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좋다’고 고집 피우며 동네 교회들을 순회하였으나 열린교회에서의 예배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배웠던 성경 말씀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며 말씀을 통해 누리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성장반 기간 동안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배운 대로 살 수 없음에 가슴이 멎들어 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지... 아는데 왜 그렇게 못 하냐고!!!! 이전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이제는 아는데 아는데 왜!!!!

‘아는 복음에서 사는 복음으로’ -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자리라는 것을 매 주일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깨닫는 중입니다. 담임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람들’ 설교 시리즈를 들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 아이들의 성장과 불신자 남편을 통해서 제 자리는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자리임을 새기는 요즘입니다. 불편하고 요구가 많으셨던 것 같이 느껴졌던 주님은, 실제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 마음임을, 내 믿음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갈까 말까... 기로점에서’ - 남편은 작년에 주재원으로 헝가리에 갔습니다. 원래는 이맘때쯤은 저도 ‘입형’을 하려고 아이들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대로의 길이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생각지도 않은 주말부부도 아닌 연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불신자 남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마음에 주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지방에 가게 되어 거기서 좋은 교회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여 사춘기에 들어선 모양새를 뽐내고 있는 중이라 청소년부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이어지고 잘 적응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요즘 열심히 듣는 성경동화를 통하여 궁금한 것이 많고 자신이 회심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신 기도제목 가운데 기도하는 어미로 기도하는 아내로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보리라 다짐해 봅니다. ☆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사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희 이동훈 박희준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김남근
-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환 김하림 이규희 김동기 손하람 최영광 김진산 김태영 정호석 최은광
- 협동목사** 정창욱
- 강도사** 김민성 이두호 조일권
-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혜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찬 이순이
- 교육전도사** 박승훈 권세원 이해선 박주광 김태훈 최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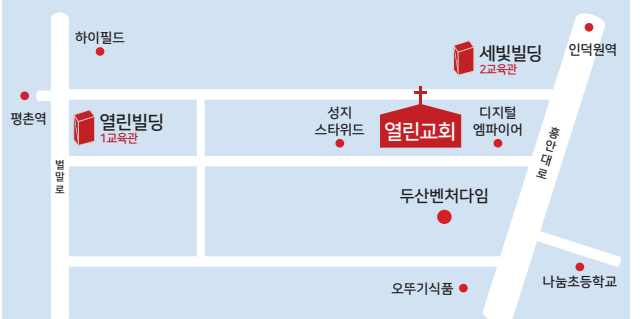
## 파송선교사

- A국: 2 units / B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태국: 김요한 & 이진

##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오후7시30분(본관3층예배실)
	목요일장년예배	정오12시(본관3층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3층예배실)
	금요기도회	오후8시(본관3층예배실)
	화요일전기도회	오전10시(본관1층예배실)
	수요일침묵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3층예배실)
	토요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2층교육실4)
	교회학교	청소년부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2층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2층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4층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3층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2층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1층교육실2)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1층교육실1)
	사랑부(청년부)	오전10시(별관2층교육실4)
외국인	중국팀	정오12시(세빛빌딩5층중국실) 中午12点(世光大廈5樓中文部)
백향목	봄·가을학기	금요일오전10시30분(본관1층예배실)
금요 테마학교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1층교육실1)
	취학부	오후8시(별관1층교육실2)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서오시면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단함 속에서 지치고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위에 소망을 심으십니다.